

## 이슬람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번역 원칙 합의

위클리프와 하나님의성회 갈등에 세계복음주의연맹 중재 성공

미국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USA)가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USA)와의 협력 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클리프가 이슬람권에 보급하는 성경 번역본에 있어서 현지인들에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한 사건 이후, 하나님의성회는 위클리프와의 협력을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이 중재에 나섰다. 위클리프는 세계복음주의연맹이 제안한 번역 상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으며 이 전체 하에 하나님의성회도 협력 관계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성회는 "이제 합의에 도달했으므로 우리는 위클리프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재개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읽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번역 작업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클리프는 "하나님의성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세계복음주의연맹의 검토와 우리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지해 준 세계 교회들의 협력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위클리프와 SIL선교회는 성경을 아랍어와 벵갈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번역이 무슬림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메시아(Messiah of God)"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자(guardian)"로 대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님의성회와 미국장로교(PCUSA) 등에서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갈등이 일자 세계복음주의연맹은 하나님의성회 내의 신학자와 타교단의 복음주의 신학자, 성경학자, 예배학자, 선교학자들로 패널을 구성해 번역에 있어서 10가지 제안점을 도출해 내 위클리프에 권고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심오한 의미를 이슬람 문화 상황에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heavenly Father)"로, 예수를 "거룩하며 영존하신 하늘의 아들(divine, eternal or heavenly Son)"로 번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R2R 축제 성향리 개최** = 제 7회 R2R 연합찬양축제가 2일 남가주주님의교회(한익준 목사)에서 성향리에 열렸다. R2R은 'Return to Revival'의 약자로, 8년 전 남가주 일원 한여청년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재점화하고자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리더들이 모여 시작한 청년부흥운동이다. 축제에는 라팔라JMC, 글린JMC 등 7개 교회가 참여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 최혁 목사, 개척 불과 2주만에 세계비전교회 담임 청빙 수락

김영빈 목사 깜작 사임배경에  
 궁금중 증폭... '내압 있었나?'

당회장 김재연 목사 급거 도미  
 일사천리로 청빙절차 진행

2주 전 다우니 인근에 '주안예교회(In Christ Community Church)'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한 최혁 목사(사진)가 6월 7일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청빙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최혁 목사는 지난 4월 초 5년 이상 시무했던 사랑의빛선교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감작사로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달 26일 다우니에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며 일간지 광고를 내며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엔 최 목사가 LA 북쪽 절반을 차지하는 샌퍼낸도밸리 노스리지 지역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직을 수락해, 그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보를 둘러싸고 교계 일부 목회자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김영빈 목사가 5월 26일 예배를 끝으로 감작사로 사임한 데 이어 며칠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



이다. 김영빈 목사는 세계비전교회 2대 담임으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스페인,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한 1.5세 목회자로 밸리 지역에서 장래 촉망받는 유망주로 기대감을 받고 있던 인물이다. 김 목사의 감작스런 사임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정난이 유력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사임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교회 당회장은 1대 담임 김재연 목사가 맡고 있었다. 장로회 헌법상 취임한 지 2년 내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1987년 김재연 목사에 의해 개척된 세계비전교회는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재정난을 겪어오다 2011년 12월 김재연 목사가 한국 칼빈신학대학교 총장직을 맡으면서 교회를 떠났다. 김영빈 목사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도 교회는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부임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김영빈 목사가 내부적으로 사임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주안예교회 한 성도에 따르면, 최

혁 목사는 지난달 30일 목요일에 배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밸리 인근 교회와 통합할 계획'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김영빈 목사가 사임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회장인 김재연 목사가 급거 도미해 지난 9일 일사천리로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거쳐 최혁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전격 청빙하기에 이르렀고, 세계비전교회는 지난 6월 9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회 이름을 '주안예교회 밸리채플'로 변경했다.

그리고 최 목사 청빙 과정에서 김재연 목사가 아예 당회장직을 내려놓고, 원로목사직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다우니 주안예교회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세계비전교회) 건물만 필요했다면, (최 목사가) 청빙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랑의빛선교회회를 떠나 다우니에 개척할 당시 최 목사를 따라 나온 성도들의 거주 분포 지역이 상당히 넓다"면서 "다우니에 먼저 개척한 교회를 그대로 두고, 밸리 인근 성도들을 고려해 또 하나의 캠퍼스를 찾던 중 마침 세계비전교회로부터 청빙 제안이 들어와 수락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하나 기자

## 베델한인교회 4대 담임에 김한요 목사 확정

어바인 베델한인교회 제4대 담임에 김한요 목사가 확정됐다.

베델한인교회는 지난 12일(수) 제직회의를 열고 후임 담임목사로 김한요 목사(사진)를 확정했다. 김한요 목사는 지난 2일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했으며, 손인식 목사에게 이어 조만간 베델한인교회 제4대 목사로 취임하게 될 예정이다.

베델한인교회는 손인식 목사가 1990년 11월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래 출석교인만 5500명이 넘는, 남가주 한인교계를 대표하는 교회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손 목사가 은퇴 계획을 밝힌 뒤 5개월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왔다.

김한요 목사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코네티컷 하트포드장로교회에서 10년간 목회한 경력이 있다. 2005년 9월 황보연준 목사 후임으로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해 교인수 2배 이상의 규모로 부흥시켰으며, 남가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1.5세 목회자로 알려졌다.

토마스 멍 기자

"가치관의 전쟁" 최대 위기의 달, 금식기도합시다 >> 15면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합니다."**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 M. Div.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2013년 가을학기부터)

(본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며, 총 98학점 중 48학점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SL 과정**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지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Level Test 및 설명회 : 8월 19~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 가을학기 : 9월 2일(월) ~ 12월 13일(금) (총 15주)
-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입학문의**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www.pts.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 관련 문의: 미국 Tel. 1-562.926.1023, Ext. 300 / E-mail. office@pts.edu

한국 Tel. 010-6612-1165 박정환 목사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장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장통합으로 이명도 가능합니다.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SEVIS I-20 발행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1-562-926-1023 / www.pts.edu / office@pts.edu

#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위로와 감사를”

## 팔순 넘은 한국전 참전 노병들 “잊지 않고 초대해줘 고맙다”



1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필그림루터교회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국인 참전 노병과 가족 일행 23명을 초청한 가운데 이들의 위로하고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점심' 행사가 열렸다. 방주교회와 남가주 경기도 동문회, 국제문화연합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한미은행, 보이스카우트 등 주최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에 참석한 미국인 노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 호국보훈의 달 맞아

### 방주교회 뜻깊은 행사

“한국전쟁은 가장 많은 미군이 피를 흘린 전쟁 중 하나다. 3년간 벌어진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 수는 3만명으로 10년간 계속된 베트남전쟁에 비해 그 수가 많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이내 잊혀졌다.”

63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 미국인 용사의 말이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흔히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13일 LA 한인타운의 필그림

루터교회에서는 어느덧 팔순이 훌쩍 넘은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위로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방주교회(김영규 담임목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국인 참전용사와 가족 일행 23명을 초청한 가운데, 독거노인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로 치러졌다. 남가주 경기도동문회를 비롯해 국제문화연합회, 미주 3.1여성동지회가 후원하고 한미은행 자원봉사팀이 동참하는 등 훈훈한 인정을 꽃피웠다. 행사는 한미 양국의 국가 제창에 이어, 한국의 전통 화관무와 소고

춤 비롯해 최금옥 여사의 맛깔스러운 전통 춤사위 무대가 잇달아 펼쳐졌고, 참석한 참전용사 11명을 대상으로 감사패 및 선물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 참전용사는 “미국인으로서 자유를 위해,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다”면서 “전쟁터에서 맺은 끈끈한 전우애와 그 비극적 희생 모두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또 다른 한 참전용사는 “전쟁은 우리에게 실존 그 자체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마음 속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전 이후 한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 나쁜 나라 젊은 나이에 목숨 바친 다른 많은 장병들도 함께 기뻐할 것 같다.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 가까이 흘렀는데도 우리를 잊지않고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기쁘다”고 말했다.

남가주 경기도 동문회 김양기 회장은 “동문간 친목도모도 좋지만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라 더욱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확산시키는데 동문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한나 기자

### “집에서 성경공부 하지마” 60일간 투옥 및 벌금형 처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 마이클 살만(Michael Salman)이 자신의 집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9일부터 60일간 구속됐고, 벌금형도 받아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는 오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들을 돌봐주시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살만은 자신의 집에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해, 구역(Zoning) 사용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7년간 이 모임을 이끌어 온 그는 징역 60일, 3년간 보호관찰, 추징금 1만2,180달러를 물게 됐다. 그의 아내 수잔나(Susanne)는 남편과 두 달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격정을 했으나, 성경공부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크리스천뉴스네트워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매우 힘들었다. 또한 홀로 여섯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또 다시 어려워질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고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것이다”고 말했다.

살만은 안수받은 목사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피닉스 시가 축구나 포커 게임을 위한 모임은 허락하지만,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모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美 남침례회 총회, ‘자살·정신건강’ 중요 안전으로 채택

### 고통받는 이들 위한

### 조건 없는 사랑과 지원 규정

미국 남침례회(South Baptist Church, SBC) 지도자들은 지난 12일 표결을 거쳐 정신건강과 관련된 안전을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이 안전은 사랑하는 이들의 자살을 경험한 가족들을 비롯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교단



남침례회 운영위원회 회장 프랭크 페이지 목사

차원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보인 관심과 사랑

을 모델로 삼은 이 결의안은, 정신건강으로 인한 수많은 상처들에 대해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우울증·정신분열·자폐증·치매·알츠하이머 등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을 결의하고 있다.

특히 영향력 있는 교계 지도자들 역시,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남침례회의 이러한 움직임

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 12일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SBC가 정신적인 질병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올렸다. 워렌 목사는 지난 4월 자신의 막내 아들을 자살로 잃기도 했다.

같은 날, 스프링데일 크로스교회의 로이 플로이드 목사는 SBC 회장인 프

레드 루터 Jr. 목사에게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어야 할 필요성을 대대하고 열정적으로 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로이 플로이드 목사는 “지금은 남침례교단이 정신적 건강의 도전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살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교인은 우울증 앓아도 '정신병원' 가진 말아야 할까

## 치유사역자들 “반드시 ‘영적 문제’ 만은 아냐... 여러 가능성 열어 줘야”



교회에서 정신분열증적 증상은 흔히 '귀신 들림'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적 치유' 뿐만 아닌, 현대 의학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직장인 K씨는 수년 간 남모름 병을 앓아왔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우울증. K씨는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뒤로 꽤 오랜 기간, 속된 말로 '용하다는' 기도 집회란 집회는 다 다녀왔다. 하지만 그때 뿐, 좋아지는 듯했던 증세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지쳐가던 K씨가 '속는 셈 치고'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 평소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K씨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몇 주간 복용하고 상담을 받은 후,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정신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신병'이란 무엇일까. 정신, 혹은 마음에 생긴 문제는 물리적인 육체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몸'에 병이 생기면,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병원을 찾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물론 그것조차 '믿음'과 결부시켜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 등 신앙의 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 그런데 '정신적' 질병은, 병원에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할 때가 많다.

요즘처럼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선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 목회자는 "각종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교인들이 부쩍 늘었다"며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 문제인지, 아니면 병원을 찾아 약물 등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인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신분열증'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 구분이 더욱 어렵다. 정신분열증은 앓는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 등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마치 바보나 광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 교회에선 이들을 흔히 "귀신 들렸다"고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들에게 '축기사역'을 행하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영적치유'를 시도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약물 등 의학에만 매달리는 상황이다.

교회에서 정신분열증적 증상은 흔히 '귀신 들림'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적 치유' 뿐만 아닌, 현대 의학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목회자 등 전문가들은 정신적 문제도 일반 육체의 병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독교 심리치료 전문가인 강선영 목사는 "정신적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십 년 간 약물을 복용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한 이도 있었다"며 "반대로 병원은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근본적인 면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하지만 정신이나 심리적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라며 "기도와 상담, 약물의 도움이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다른 한 심리치료사는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앙을 가진 내가 '정신병'에 걸릴 리 없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병이 악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선영 목사 역시 "정신분열증도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령론 등 영적 사역을 깊이 연구해 온 배본철 교수(성결대 역사신학)는 "정신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 의학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신앙적 행동'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신병의 치유에 있어 영적인 방법과 의학적 방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치유 영역은 반드시 기도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의학 역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 중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앙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정신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모두 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것들을 기도와 상담 등으로 치료한 예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는 교회의 책임 역시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목회자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며 "이는 과연 교회가 '영적 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나 하는 물음을 갖게 만든다. 정신병 중에는 물론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성이 건강한 이라면 그런 병에 걸릴 확률 또한 낮을 것이다. 지금의 교회가 그런 영성을 심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오지 선교지에 솔라등 이용해 '사랑의 빛' 전한다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환 선교사, 임종표 선교사, 박기호 교수, 김경일 선교사.

전기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오지의 선교지에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이 전개된다.

GMAN이 주최하고 KWMF 북미주 지회, SON Ministry와 크리스천월드 가 공동주관하는 이 운동은 세계 20억이 넘는 인구가 전기, 전화 등 문명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오지인들에게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등'을 보내 야간에도 선교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자비량 선교의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역을 지원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솔라등은 벤처사업가 김만덕 장로(전 LG연구소 연구원)가 총괄 개발한 제품으로 오지에서도 최적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제품은 태양열 수집패널을 비롯 전등을 벽에 부착하는 닥킹베이스, 불이 켜지는 램프 등으로 구성됐다. 자력을 이용해 철 표면에 탈부착이 가능하며 LED 등으로 만들어져 책상 위의 스탠드, 랜

턴으로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또 자체적으로 충전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을 5V에서 40V까지 충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제품은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며, 9월에 1차로 2000세트, 12월에 2차로 5000세트를 네트워크가 돼 있는 선교지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GMAN은 밝혔다. 주최 측은 교회와 선교지 간에 일대일 결연을 통해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운동의 임시공동위원장은 박기호 교수, 임종표 선교사, 조용중 선교사가 참여하며, 발족위원회에 김승봉 선교사, 김경일 선교사, 박영국 목사 외 10여명이 참여한다.

GMAN 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무슬림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이슬람 교리를 전하는데, 기독교인은 빛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폴리신학교 박기호 교수는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 각지의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표 선교사는 "이러한 선교 비

즈니스를 통해 선교지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현지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선교사는 "빛을 공유하고 나눌 때 비록 작지만 선교지에서는 커다란 열매로 맺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크리스천월드 권지현 사장의 깜짝 발표로 김정환 선교사

가 크리스천월드의 발행인으로 추대됐다. 김 선교사는 "앞으로 신문의 편집방향으로 선교신문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선교사들을 네트워크함으로써 서로 돕고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빛 나누기 운동 후원문의: (714) 522-7766 (김정환 선교사), (714) 576-0901(크리스천월드)

- 시온마켓 내 -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세탁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앞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릭 페리 주지사 “보수 세력이여 겸손하고 용감하라”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사진)가 신앙과 자유연합의 한 행사에 참석한 보수 세력에 “겸손하며 용감하라”고 요청했다. 그가 “나는 전국 TV 토론회에서 겸손에 대해 조금 배웠다”고 말문을 열자 청중들에게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대선 주자 당시 갖가지 실언으로 망신을 당한 자신을 풍자한 말이었다. 페리 주지사는 CN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핵심 공약을 잊어 버려 곤욕을 치렀고 투표 가능 연령(18세)과 음주 허용 연령(21세)을 헛갈리기도 했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바꾸어 부르는가 하면 터키를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이끄는 나라라고 발언했다가 외교력 논란에도 휘말렸다.

당시 유력한 주자였던 그는 이 사건들 이후 결국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다. 페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공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같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강조했다. 페리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를 인용했다.

페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관해 “가끔씩 머리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실은 나도 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겸손을 배웠을 때에도 그는 매우 용감했다”며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러나 동시에 용기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신있게 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낙태단체인 플랜드페이먼트(Planned Parenthood)에 주 정부 지원금을 중단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낙태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일들이 주지사로서 자신이 소신있게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확신과 열정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노나 타인에 대한 열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영선 기자

# 목회자의 설교 몇 분이 적당?

## 길다는 사람은 있어도 짧다는 사람은 없다

목회자의 설교가 개신교회 예배의 가장 주된 요소이며 또 교회의 건강과 영적 생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라이프웨이리서치의 대표인 톰 라이너 박사는 “목회자들이 보통 몇 분을 설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야 할만큼 중요한 과제는 아니었기에 그는 트위터를 통해 간단히 설문조사를 했으며 엄청난 사람들이 답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톰 라이너 박사

라이너 박사는 “이 조사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5분 미만- 1% ▶ 15분에서 20분- 1% ▶ 21분에서 25분 이하- 5% ▶ 26분에서 30분 이하- 18% ▶ 31

분에서 35분 이하- 23% ▶ 36분에서 40분 이하- 18% ▶ 41분에서 45분 이하- 26% ▶ 46분에서 50분 이하- 1% ▶ 51분에서 55분 이하- 4% ▶ 56분에서 60분 이하- 1% ▶ 60분 초과- 1%

85%의 설교자들은 26분에서 45분 간 설교하며 전체의 절반 가량이 36분 미만으로 설교한다는 결론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평신도들은 10명 중 6명이 목회자의 설교 길이가 매우 적당하다고 답했고 4명은 설교가 길다고 답했다. 재미난 사실은 설교가 짧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캠프 열린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오는 27-29일 UC산타바바라대학에서 미 서부지역 연합으로 '사랑의캠프'를 개최한다.

매년 여름 남가주밀알선교단이 개최하는 사랑의 캠프가 서부지역(밴쿠버, 북가주, 남가주) 연합으로 오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2박 3일간 UC산타바바라대학에서 열린다.

무료 토요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은 현재 다섯 곳(OC, LA, ELA, Irvine, Torrance)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사랑의 캠프는 장애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특별

한 캠프이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문화선교단인 Passionate People of God(PPOG) 팀과 ANC온누리교회 청년팀(The Roof Above Christ, TRAC)이 함께 참여해 찬양과 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밀알선교단은 “15일까지 봉사자들(10학년 이상)과 발달장애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현재 참가 인원은 봉사자들과 스텝까지 합해 총 400여명으로 예상되며,

참가비는 170달러이다.  
 >전화: (714) 522-4599  
 >이메일: CLASSAGAPE@MILALMISSION.COM >홈페이지:WWW.MILALMISSION.COM

토마스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얼굴축소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미드웨이)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design@christianherald.com <design@christianherald.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1990년에 고 박요한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과정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관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미주개혁대학교의 D. Min, D. Miss, Ph.D in Theology(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개혁대학교는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Graduate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Graduate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세부전공:**  
 신학 Theology,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심리학 Psychology, 선교학 Missiology,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26일(금)  
 장소: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수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SEVIS I-20 발행**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Office 213-736-6500 | Fax 213-736-6504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 무엇을 위한 인연인가?

열왕기상 17:8-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합 왕 당시 왕이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아합 왕은 신앙이 이성 자율주의적 경향으로 제멋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통성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집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미신우상을 가지고 왔고 원래 의지심이 약하고 인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아합을 쉽게 사로잡아서 왕비가 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잡게 되면서 전 이스라엘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850명이나 세워서 국비로 생활을 보장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권력으로 바른 진리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세금도 과다징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대 없이 신앙인격이 뿌리내리지 못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선 육신의 형편이 될 시달리며 보호를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신앙을 헌신처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변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엄청난 불행은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 땅에 초목이 살 수 없도록 하셔서 사람들이마져 굶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아합에게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게 하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들어 쓰시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열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한 최저 생계대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으로 그렇게 그곳에 있던 중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내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을

찾아 나서든지 땅을 파보든지 했을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강물 마름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형편처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자기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신 후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하시고 훨씬 더 나은 대책을 예비해 주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냇가는 편히 누워 잘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를 공개하도록 예비해 주신 것은 그가 그런 시냇가에서의 시련에 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청하고는 물을 가지러가는 그 과부를 향해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드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잘못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말재간 떨어져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드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말씀에 기대를 걸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하신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어져서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엘리야를 처음 모셨을 때는 아마 구세주와 같이 하나님처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것으로 공개하듯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부나 그 집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섬기는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고 섬기는 일이 귀찮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시험에 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나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꾸짖습니다. 벌써 모자가 죽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동안 엘리야 덕분에 살아왔던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죽은 그 아이를 달라하여 그가 우거하는 다락방으로 옮겨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할일없이 과부의 공개만 받으며 살아왔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이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꾸짖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과 그 아들의 죽음은 육신의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진

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적인 구원까지 얻어야 하는 목적으로 맺어주신 것이며, 나태해진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각성시켜 분발하게 하고 사역에 새로운 열심히 새 출발시켜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도하신 이유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속에서 고난을 겪는 때 한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소망에 믿음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환란을 당하게 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실패와 쓰라린 수모와 곤욕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억울한 손해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자력 갖추기를 서두르지 않고 허무맹랑한 일에 골몰하며 시간과 정욕을 잘못 허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도한 일이 적중되어 성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고 엘리야도 과부에게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 엘리야와 과부에게 기대하셨던 영적인 소망이 바른 자세로 회복을 보게 되니 죽은 아들의 영혼을 되돌려 주시므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와 과부의 인연은 무엇을 위한 인연인지, 나와 교회, 나와 목사님과의 인연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p>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p> <p>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p> <p>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p>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찬양대 지휘자 청빙

남가주사랑교회에서 섬기실 교역자를  
아래과 같이 청빙합니다.

1부 찬양대 지휘자(파트타임) 1명

❖ **자격:** 신학 중 혹은 신학을 마친 분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

부지휘자(파트타임) 1명, 음악간사(애프터타임) 1명

❖ **제출 서류:**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 2장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 혹은 행정 목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오디션과 인터뷰

❖ **마감일:** 2013년 7월 1일

❖ **문의 및 제출처:** 조성환 음악 목사 (714) 403-8952 scho@hiu.edu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e-mail: church@sarang.com

## 어느 비오는 날의 추억



김한요 목사  
세리투스장로교회

요즘처럼 아침이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한 날이면 생각나는 딸과의 예쁜 추억이 있다.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에 우리 가족은 인천에서 살았다. 아버지를 닮아 유난히 비를 좋아하던 우리딸 지인이 세 살 때였다.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 지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바깥으로 나가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딸을 위해 준비한 노란색 비옷과 노란색 장화로 무장을 하고, 노란색 우산을 들고 골목으로 나왔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여운 노란색 병아리가 또 있을까?

부슬부슬 내리던 빗방울은 어느새 바람을 동반한 굵은 빗줄기로 변해 있었다. 세살배기 지인이 혼자 힘으로는 우산을 지탱할 수 없어서 내가 딸아이의 우산을 잡아주려고 했지 이 자기 힘으로 우산을 들겠다고 우겼다. “아빠가 안 도와줘도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결국 나는 한 손으로는 나의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지인이 몰래 딸의 노란 우산 꼭지를 붙들고 골목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지인이 우산을 쓰러뜨리지 않고 잘 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인의 우산

꼭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도와주는 아버지의 손을 보지 못하는 어린 딸은 한번씩 나를 올려다 보면서,

“아빠 보세요, 아빠가 안 도와줘도 지인이 혼자서 잘 하죠?”라며 의기양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 나는 어린 딸과 함께 골목길 빗 속을 거닐었던 옛 추억이 다시금 생각났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우산을 꼭 붙들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후에 변함없이 존재했던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눈 덮힌 저녁에 숲 속에 머물러

Robert Lee Frost

Whose woods there are I think I know.  
누구의 숲인지 내가 알고 있다네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그의 집은 저기 마을에 있지만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내가 여기 있는걸 그는 알지 못하리  
To watch his woods filled up with snow.  
눈으로 뒤 덮힌 그의 숲을 보려고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내 작은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농가 하나없는 근처에서 있으니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숲과 얼어 붙은 연못 사이에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일년 중에 제일 어두운 밤에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작은 말은 목에 맨 종을 흔드네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그 밖에 다른 소리라고는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술술 부는 바람과 눈 내리는 소리뿐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고나  
But I have promises to keep,  
하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네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자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다네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자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다네

로버트 리 프로스트(Robert Lee

Frost, 1874~1963년)는 미국의 시인이다. 뉴햄프셔의 농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그는, 그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을 맑고 쉬운 언어로 표현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생의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20세기 미국 최대의 국민적 시인으로, 전후 4회에 걸쳐 풀리처상을 받았다.

작품으로 시 《소년의 의지》, 시집 《보스턴의 북쪽》, 《시 모음집》 등이 있다.

이 시는 그가 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살 때 쓴 시로, 시 속에서 그는 인간의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충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자연적이어야 한다고... 아가페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든 인간이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시들은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공존의 이중주의(Dualism)로, 현실주의는 물질적인 영역에 좀더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낭만주의는 이상주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 현실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

〈시 감상〉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어라)〉는 낭만주의(Romanticism)를 표현하고 있으며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자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남아있네)〉는 철학한 현실주의(Realism)를 인간의 책임(Responsibility)으로 묘사하고 있다.

종교적인 믿음도 정치적인 사상도 철학적인 이념도 문학적인 사색도 현실과 상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뜻 일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현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선망하는 믿음과 현실에서 그 귀한 믿음을 실천하려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시라고 하겠다.

모든 인간은 낭만주의와 현실주의 속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시인은 실경에 취하여 어두움이 깃드는 상황조차 잊은 듯 냇을 잃고 있다. 균형을 잃고 있을 때 당나귀 새끼라도 있어 목 종을 울려 깨우쳐주기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한편, 어떤 면에서 동물이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인간은 애완동물을 선호하는 것 일까!



배호식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

##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 English (초급 영어)

▷John: Do you play tennis? (테니스를 치나요?)  
▷Maria: Yes, I play tennis every other day. (네, 하루 건너 한 번씩 합니다.)  
▷John: How many hours do you sleep a day, Maria? (마리아 씨,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Maria: I sleep 8 hours a day. (하루에 8시간 잡니다.)  
▷John: Do you like to read the books?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Maria: Yes, I do. Reading a book is fun. (네,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건 재미있습니다.)  
▷John: Do you like your English teacher? (당신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Maria: Yes, I like my English teacher. (네, 저는 제 영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 English (고급 영어)

Life is an opportunity, benefit from it. (삶이란 기회다.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라.) Life is beauty, admire it. (삶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존중하라.)

### English (중급 영어)

The Word was in the world, and

though God made the world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his own country, but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Some people, however, did receive him and believed in him, so he gave them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John 1: 10-12).

말씀이 세상에 있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아직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기 땅에 왔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약간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믿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했다. 〈요 1:10-12〉

### English (고급 영어)

Life is an opportunity, benefit from it. (삶이란 기회다.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라.) Life is beauty, admire it. (삶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존중하라.) Life is a dream, realize it. (삶이란 꿈이다. 그것을 현실화하라.)

Life is a challenge, meet it. (삶이란 도전이다. 그것을 만나보라.) Life is a duty, complete it. (삶이란 의무다. 그것을 완성하라.)

Life is a game, play it. (삶이란 놀이다. 놀아 보라.) Life is a promise, fulfill it. (삶은 약속이다. 그것을 완성하라.)

Life is sorrow, overcome it. (삶이란 슬픔이다. 그것을 극복하라.) Life is a song, sing it. (삶은 노래다. 그것을 노래하라.)

Life is a struggle, accept it. (삶은 싸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Life is a tragedy, confront it. (삶은 비극이다. 그것에 대처하라.) Life is an adventure, dare it. (삶은 모험이다. 그것에 대응하라.)

Life is luck, make it. (삶은 행운이다. 그것을 만들어라.) Life is too precious, do not destroy it. (삶은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파괴할 수가 없다.)

Life is life, fight for it. (삶이란 삶 자체다. 그것을 위해 투쟁하라.) “우린 모두 올바른 삶을 위해 힘써야 한다”

〈마더 테레사 어록 중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태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 ■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문화, 열매에 사랑교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신학교회, 메이벳 맥 변회사 그룹, 미용실 변회사 그룹, 가주 영모호텔, Lahenco, Inc. 해밀러 자영사, 남가주 총회도도연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태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 Nyskc Family Conference 2013

## Nyskc Movement



### July 1 - 4

NORTHERN ARIZONA UNIVERSITY



## Arizona

Nyskc World H.Q.  
조직위원회

총재 :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고선 목사  
상임회장 : 디모데박 목사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 윤사무엘 목사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 아리조나 준비위원 임원 명단

서부분부장 : 김은목 목사 (LA 평화교회)  
준비위원장 : 오염운 목사 (길벗한인교회)  
부위원장 : 김재욱 목사 (열방교회)  
총무 : 윤정용 목사 (템피조로교회)  
서기및회계 : 오천국 목사 (새빛교회)

#### 자문위원

박정인목사 문흥국목사 조정기목사  
윤상돈목사 송석민목사 유영길목사  
김안수목사 윤원환목사 김환근목사  
김찬홍목사

####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장소 : Northern Arizona University  
S. San Francisco St.  
Flagstaff, AZ 86011

등록마감일 : June 5, 2013  
참가지 : (교통비 별도)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T. 845.355.8829, 480.766.1792  
646.203.2644, 917.698.9965

### "Send the Spirit in Fullness Today"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New Life

Yielding for Manna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2014 Nyskc Family Conference는 Texas Houston 에서"

##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nyskcworldmission@gmail.com

#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 vs “근대 서구의 인식틀일 뿐”

## NCKK ‘종교간 대화 심포지움’ 서 보수-진보 신학자들 격론

‘종교간 대화’는 기독교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주제다. 진보 진영이 타종교와의 적극적 대화 및 연대를 추구하는 반면, 보수 기독교는 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대개는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양 진영의 신학자들이 이를 두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종교간 대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보수 신학자가 발제하고 진보 신학자에게 이에 논평하는 식이었다.

먼저 김동춘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가 ‘한국 보수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교간 대화’를 제목으로 보수 기독교가 왜 종교간 대화를 멀리하는지를 대변했다.

김 교수는 “종교간 대화 문제는 보수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민한 주제다. 정서상 금기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수 기독교에게 종교간 대화란 근본적인 전제상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보수 기독교의 신학적 사고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 전제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절대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종교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화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명료한 진리로 거의 교의나 규범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며 “보수 기독교가 이미 기독교의 절대성과 타종교의 비진리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그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수 교회에게 기독교



김동춘교수



이정배교수

### “보수 기독교에 종교간 대화는 거의 불가능”

### “믿음의 눈만이 아니라 의심의 눈도 필요”

### WEA,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의 선교 지향

는 기본적으로 ‘오직 예수’의 종교다. 보수적이든 덜 보수적이든, 적어도 복음주의적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구원의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나 다른 종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

원의 길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전제 앞에서 종교간 대화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수 기독교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타종교에 강압적 모습을 보이거나 독선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교간 대화의 문제는 종교간 평화를 위해, 그리고 타종교 안에서의 기독교 선교를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수 기독교의 타종교에 대한 우월주의나 정복주의적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기독교 복음을 불신자와 타종교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마저 비난받을 수는 없다”며 “종교다원주의가 종교간 배려와 존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추구하는 선교적 사명과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정체성을 포기하는, 소위 해체의 과정으로 흐른다면, 예민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결론 내렸다.

김 교수의 발제에 논평한 이정배 교수(감신대)는 “발제자(김동춘 교수)는 종교간 대화를 난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보수 신학의 논거를 기독교의 절대성과 타종교의 비진리성에서 보았다. 이는 보수 신학의 전제적 진리로서 떨리는 성서문자주의로부터, 가까이 있는 교조적 칼빈주의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보수 신학의 명제적 진리가 성서적이기보다 오히려 근대 서구의 동일성 철학의 산물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기독교 절대성에 대한 보수 신학의 주장은 자연스레 이웃 종교의 비진리성, 즉 배타적 구원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도식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근대 서구의 인식틀일 뿐”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를 ‘어머니’에 빗대 설

명하기도 했다. 그는 “종교란 믿는 당사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아무리 못났어도 어머니는 자신에게 최고의 존재인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에도 단계가 있다. 어린 시절엔 어머니에게 절대 의존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며 다른 어머니와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어머니를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더 나이가 들면 그 어머니가 다시 소중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독교가 자신의 명제적 진리만을 고집한다면 사춘기 이전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자기 종교를 의당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눈만이 아니라 의심의 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발제자(김동춘 교수)는 종교간 대화가 종교연합주의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미 성서신학자 R. 볼트만이 밝혔듯 원시 기독교는 본래 종교연합주의적 현상이었다”며 “그는 구약성서, 유대교, 스토아철학, 영지주의, 그리고 밀의 종교들이 바로 신약성서 속에 산재되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기독교 정체성은 상실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혼합적 개방 과정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선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실천신학)가 WEA(세계복음연맹)를 중심으로 본 복음주의권 종교간 대화의 정책과 기준을 제목으로 전했다. 김은규 교수(성공회대학교)가 여기에 논평했다.

김선일 교수는 “전통적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WEA는 기독교 우월주의적 자세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 가운데서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는 21세기 글로벌 다원주의상황에서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에 부응하는 대처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자유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WEA의 전통적·정책적 일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WEA나 로잔, 그리고 범복음주의권의 선교적 인식은 종교간 정책과 대화에 있어서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라는 원칙 아래서 발전적 모색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는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종교의 자유 또한 존중해줘야 하는 성경적 ‘황금률’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 세계의료선교사, 나성순복음 실버대학서 수기치료 봉사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대표 박승부 장로(뒷줄 우측에서 세번째)를 비롯해 동재단 수료생들이 지난달 30일 나성순복음교회 산하 실버대학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기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의 수료생들이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실버대학 정기 모임에서 몸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기치료를 실시했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에서는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전문치료

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해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수기치료는 각종 디스크는 물론 척추교정, 골반교정, 성인병,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편두통 등 치료에 도움을 준다.

▶ 문의: (213) 381-7273

# Web Program Web Design

**Our Services**

- 기능,속도 문제 수정
- 프로그램 오류,버그,바이러스
- Maintenance 및 관리
- 어드민 기능 추가
- 웹프로젝트 추진
- 지원가능한 CMS :  
OPENCART, CS-CART, PRESTASHOP, X-CART, MAGENTO, XE , WORDPRESS등
- 메인페이지 리뉴얼
- 어플 제작(안드로이드)

기독교일보 웹개발 사업팀  
**T. 213 718 1512**  
chdailya@gmail.com



### 남가주 교계 연합해 차세대 위한 장학금

남가주 기독교계가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발굴과 격려에 뜻을 모은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연합해 실시하는 이번 장학금 선발과 장학금 수여식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리스천 문화를 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가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1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2013년 9월 기준) 중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 대상이며 지난 1년간 성적지 GPA 3.5 이상이어야 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출석자, 한 가정 수입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선발에 우선권이 있다.

전체 장학금은 고등학생 20%, 대학생 80%로 구성돼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에 비중을 두었으며 성적과 관계 없이 일단 저소득층에 20%를 할애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

한 학생들을 돕는다. 타민족을 위한 비율도 10%가 배정되어 있다. 각 조건이 비스할 경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학금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은 남가주 교협 웹사이트(www.theckc.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재학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성적증명서, 교회 주보, 세금 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최측은 6월 30일까지 장학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학금 마련을 위해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뜻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의 기부도 받고 있다.

▶ 문의: (213) 255-1725 (양경선 목사)  
김준형 기자

### 릭 워렌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도 사역 잘 돼... ‘아주 잠깐’ ”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의 담임이자 베스트셀러 <목격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How to Have a Thriving Intimacy With God)”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이 없이도 사역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서를 달았다.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고.

그는 “누구나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오래 가진 못하다. 우리에게 뜨거운 헌신적 삶과 예수님과 친밀함이 모두 필요하다”며 “목회자들은 간혹 사역의 분주함과 설교 준비로 인해,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치곤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3T’로 정리했다.

먼저는 ‘Time’(시간)이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워렌 목사는 “나는 5년 전, 혹은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우리보다 우리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균중 속에서는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기

### 풍성한 인격적 교제 위한 ‘3T’ 강조

어렵다. 그들이 아는 상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깊이 알아갈 수는 없다. 알게 되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두번째는 ‘Talk’(대화)다. 관계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입을 다물면 결혼 관계에 위기가 온다. 대화가 없으면 관계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워렌 목사는 “만약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나누는 대화를 여러분이 엿듣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목사 같지 않다고 느낄 것”이라 고백했다. 그는 “나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대화는 별반 영적이지도 않다. 나는 패스트푸드점 타코벨에 가면 ‘하나님! 이 타코를 먹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며, 기쁨이 없을 때에는 침통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한다”고 했다. 워렌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소통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진다”고 단언했다.

마지막 세번째는 ‘Trust’(신뢰)다. 관계는 신뢰 위에서 자라난다. 그는 “나는 아내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를 신뢰한다”면서 “우리는 처음 결혼했을 때 화장실에 수건은 어떻게 걸고, 치약은 어떻게 짜서 쓰는지에 대해 수많은 규칙을 정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규칙들은 점차 무의미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시기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는 “내 인생 최고의 꿈은 교회 개척이나 천국의 상급, 사람들을 예수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b>한천영</b> 담임목사</p> <p><b>갈릴리션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p> <p><b>강진웅</b> 담임목사</p> <p><b>갈보리민음교회</b>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b>엘리아 김</b> 담임목사</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헌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p> <p>성인 EM예배 오후 2:00 헌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헌성</b> 담임목사</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A / T.(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b> 담임목사</p> <p><b>나성순복음교회</b>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b>영아예배</b></p> <p><b>나성한인교회</b></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b>김광삼</b> 담임목사</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p> <p><b>정우성</b> 담임목사</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b>김요섭</b> 담임목사</p> <p><b>남가주리디머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b>김성광</b> 담임목사</p> <p><b>성재복음선교회</b> 은 성도가 사랑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하는 교회</p> <p>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p>
<p><b>박승부</b> 장로</p> <p>17/27/37기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로션교사 양성 -막물나기/구급이/산문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p> <p><b>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b></p> <p>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비릿 튀) T. (213) 381-7273</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p> <p><b>조인수</b> 담임목사</p> <p><b>써니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의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b>이경애</b> 목사, <b>이은우</b> 목사</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전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p> <p><b>요한 선교회</b></p> <p>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환</b> 담임목사</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b>정장수</b> 담임목사</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p> <p>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p> <p><b>이명수</b> 담임목사</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30 (토)</p> <p><b>이명수</b> 담임목사</p> <p><b>청운교회</b> 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p> <p><b>김기섭</b> 담임목사</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1세부터 70세, 이만21세부터 70세,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p> <p>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p>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p> <p><b>강지원</b> 담임목사</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b>최은영</b> 담임목사</p> <p><b>세계선교회</b>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p> <p>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p>

### 성경이 성공 지침서?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라

#### 차비잔 목사, 칼럼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찰



차비잔 목사

빌리 그래함 목사의 외손자인 윌리엄 그래함 툴리안 차비잔(William Graham Tullian Tchividjian)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칼럼을 최근 발표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의 대형교회 코랄리지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그는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마치 우리의 성공, 성취, 믿음, 거룩에 관한 책으로 읽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래서 성경을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지침서 쯤으로 인식하고, 성경에 나온 원칙을 잘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보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하늘이 보내준 인생지침서(heaven-sent self-help manual)’로 본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예로 들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잃어 버리기 쉽다”고 했다.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부터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신다. 차비잔 목사는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예수와 그의 우리를 위한 사역을 놓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우리의 자기도취(narcissism)나 자기 개발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선한 사람이 축복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복받은 악인들의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했던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악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좌절했고 실수했다. 두려움에 빠졌고 이기적이고 속임수를 썼으며 자기 중심적이었다.

차비잔 목사는 “성경은 우리의 실패와 그의 도우심, 우리의 죄와 그의 은혜, 우리의 악함과 그의 선하심에 관한 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은 구속받은 자의 업적에 관한 책이 아닌, 구속해 주신 분의 업적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의 성공적 조리법이나 기독교적이지 못한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글을 맺었다.

# 교회입니다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미니 및 수양관 사용  
예약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점심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올림픽장로교회 21주년 맞아 '아름다운 힐링 콘서트' 개최



올림픽장로교회가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아름다운 힐링 콘서트'가 15일 열렸다.

### 정장수 목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림픽장로교회(정장수 목사)가 21주년을 기념해 '아름다운 힐링 콘서트'를 15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했다.

이날 서울재즈클럽, 한국무용단, 베이스 류정상, O.P.C 콰이어, 진발레스쿨, L.A.C.S, 밀알선교단 수어찬양팀, 소프라노 진수연, 테너 오위영 등이 참여해 다양한 합창과 장구춤, 아크로바틱, 기타 듀엣, 발레와 힙합, 수어찬양을 선보이며 청중으로부터 많은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정장수 담임 목사는 "21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랐다. 어렸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가정도 이뤘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셨고, 세상을 돕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찬양위원회 위원장 권순암 장로는 "찬양은 그 백성의 정직한 소리요, 그 자녀들의 꽃이요 향기이며 열매이다"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일에 부요한 삶을 살아서 찬양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올림픽장로교회는 1992년 6월에 한인복양교회란 이름으로 시작해 2000년 12월에 엘림교회와 통합, 엘림복양장로교회로 개명을 한 이후 2002년 1월에 현 이름인 올림픽장로교회로 개명을 했다. 이후 2010년에 창립 17주년예배 및 임직식을 갖고, 2011년 12월에 여성초청전도축제인 '프로포즈'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 남가주 UMC의 청년부흥운동 'R2R 찬양축제' 열려

제 7회 R2R 연합찬양축제가 2일 저녁에 캘리포니아 로렌 하이츠에 있는 남가주주님의교회(한인종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R2R(Return to Revival)은 8여년 전 남가주 지역의 한어청년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남가주 연합감리교회(UMC) 한인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청년부흥운동이다.

UMC는 매년 연합찬양축제와 연합청년수련회를 개최해 청년들로 하여금 이 세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과 도전으로 영광드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 총 7개 교회(라팔마UMC, 로스펠리즈UMC, 벨리UMC, 윌셔UMC, 은혜의강UMC, 남가주주님의교회, 금란교회)가 참여해 2시간여 동안 찬양으로 하나되어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보냈다.

축제에서는 총 남선교회 회장인 양범모 장로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류재덕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각 교회 찬양팀이 수개월에 걸쳐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선보였으며, 특별히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워십댄스와 사물놀이, 그리고 찬양으로 한데 어우러져 발표를 했다.

### [BIZ]

### 추억의 자판기 커피, 우리 교회에서 이용해볼까?

Coffee Tree USA 10주년 맞아 다양한 혜택 제공

추억의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이민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다. 미니커피자판기 미주 총판인 Coffee Tree USA에서 추억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커피와 Tea를 제공하는 '커피 미니 자판기'를 미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 미국 시장에 자판기가 공급된 지 10주년을 맞아 흥보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하고 있는 이 회사는 커피 자판기가 이민자들이 자주 모이는 교회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프리 서비스부터 25센트 또는 50센트로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해외선교자금으로 마련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 사장은 "이민자들에게 옛날 다방커피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판기를 공급하게 되었고, 기계 관리가 쉬워서 여러 사람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여러 교회에서 자판기를 비치해놓고 쓰면서 목사님들이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공급하는 자판기는 현재 남가주의 교회, 식당, 은행, 사무실 등 한국인이 모이는 여러 곳에 비치돼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A/S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Coffee Tree USA 이인 사장

설명이다. 맛의 종류는 밀크커피, 한국차(검정공용무차, 유자차, 대추생강차), 카푸치노, 핫초코, 블랙커피 등이 있다. 이인 사장은 "기존의 커피 메이커로 만든 커피는 남은 것을 버려야 하는 낭비가 있지만, 이 자판기로는 재료의 낭비가 전혀 없어 재료 절감의 경제성이 있다"며 "추억의 밀크커피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문의: (213) 272-7502, (213)-820-1191  
웹사이트: www.coffeetreeusa.com

### 드리스콜 목사 “은사는 중단되나? Yes! 중단됐나? No!”



마스힐교회의 마크 드리스콜 목사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마스힐교회의 담임 마크 드리스콜 목사(Mark Driscoll·42)가 “은사중 단론에 일부 동의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설교했다.

전통적 칼빈주의자이자 미국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 맥아더와 같은 은사중 단론자들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과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언어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글로술라리아)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믿고 있다.

지난주 드리스콜 목사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한 3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질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가?”, “마스힐교회는 오늘날 방언의 은사를 믿는가?”,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가 대중들에게 가면 어떻게 되나?”이다.

대답에 앞서, 드리스콜 목사는 방언의 사용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취하고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었으며, 사도행전 2장 1절~13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를 돌아보았다.

드리스콜 목사는 설교에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물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는 고린도전서 12장 8-11절 말씀을 인용했다.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 지와 관련해서, 드리스콜 목사는 은사중단론에 동의하지만 또한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는 설교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전도의 은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천국에서 ‘밖으로 나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모든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끝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8-12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을 이어 언급했다.

드리스콜 목사는 “우리는 은사중단론자들이 ‘최소한 일부의 은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동의한다. 은사는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은사중단론자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은사지속론자들에게 동의하는 점은, 은사가 그치는 시점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모든 은사가 세계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변화의 한 때가 올 때까지 지속된다고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언제 이 모든 은사들이 그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볼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론자들이 맞다. 일부 은사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중단론자들이 틀린 점은 그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속론자들은 모든 은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BIZ]

### 삼성 레이저프린터 저렴하게 이용해볼까?



프린터 판매와 리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토너섬 재 심(Jae Shim) 대표

#### 렌트도 60%이상 저렴하게 공급

프린터 판매와 리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토너섬(TonerSum, 대표 Jae Shim)이 삼성 ML-2525 79달러에, 삼성 ML-3312ND를 99.99달러로,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ML-2525는 1분당 29매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미주사회 각 기관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흑백 토너와 잉크 카트리지도 이 업체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토너섬 재 심(Jae Shim) 대표는 “정품 토너 가격의 반값에 판매하고 있다”며 “삼성 토너를 OEM토너로, 박스가 없는 것을 저렴

하게 공급하고 있다. 보통 중국제는 질이 떨어지는데 한국제품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컬러 프린터를 렌트할 경우, 2000장 프린트 시 24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60% 저렴하게 해서 100달러에 대여하고 있다. 또한 사진 복사기도 판매하고 있으며, 고장난 프린터 수리 서비스까지 대행하고 있다.

토너섬에서는 현재 전화로 주문할 경우 LA시 반경 30마일 이내에는 직접 배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 (626) 802-5712, (760) 604-1460(CP) ▶웹사이트: www.toner4u.us

###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어장년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철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김함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미라클센터)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라클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라클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라클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제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9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귀감받은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와 생명의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염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월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일 아침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기암 담임목사**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도 자녀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일 저녁 8:00 분당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확장 이전 기념 세일!

원산과 개선과  
원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모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번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16온스 소금(소비자가격 40불) 상당을 더 드리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보증기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16온스(파운드)  
소비자가격 40불  
무료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p>프로모션 A</p> <p>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p> <p>\$28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p> <p>\$27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p> <p>\$28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차폐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컸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고 치료해 준다던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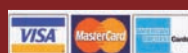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연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REVIEW

## “삶이란, 사랑을 더하고 무관심을 빼며 감사를 곱하는...”

### [예수님 마음으로 책 읽기] 엄정희 권사의 <오리의 일기>

한 주부의 48년 동안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부는 경계여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이화여대에서 교육학 석사, 그리고 백석대학에서 상담학 박사를 받고 서울사이버대학 가족상담학과 교수를 하는 엘리트이고, 남편은 올해 은퇴한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입니다. '나와 상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일기를 썼구나! 남편의 대기업 회장 은퇴 기념으로 작성한, 넉넉한 주부의 회고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일기를 읽어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을 참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 딸에 대한 따스한 어머니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순수한 모습이 글 속에서 느껴집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진실하게 썼기 때문일 겁니다.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록했다면, 분명 글에서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38년 전 청년 이승한을 만나 결혼한 그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교회에 간 것이 참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5년 7월 6일 일기에 이런 글이 있네요. "주일날 1부 예배에 가 주는 것을 약속받았다. 어제는 60%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오늘 그에게 응석 부리며 간청하자 들어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좀 고단하고 잘 모르겠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부인 말이 맞았다고 할 날이 올 거예요.'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교회에 나가고 싶다가보다 내가 그토록 원하니 들어 주는 것 같았다. 주님, 그에게도 저에게도 믿음 더욱 주시어서 주님의 사



오리의 일기  
엄정희 | 서로가꿈 | 320쪽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노라던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조금이나마 소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어느 정도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엘리노아 루스벨트'의 이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Only the Present is the Present(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만이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로 만들기 위해 50대를 '배움의 계절'로 삼는다. 교회에서 학교 설립 계획이 있었기에 교육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더 해. 건강도 좋지 않은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런데 저자는 포기하지 않고 상담학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합니다. 건강 때문에 남편의 반대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60대를 '비전의 계절'로 상담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비전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Jesus, the first. Others, the second. You, the third(예수님을 첫번째로 섬기고, 이웃을 두번째로 섬기고, 세번째로 나를 키울 때 진정한 기쁨과 비전이 온다)." 하느님처럼 살아가는 무부에게 드리는 합일 메시지

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 비서실에서 일하는 바쁜 남편에게 주일에배만은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아내,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이니 들어주겠다고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허니문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 성주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맙니다. 초등학교 생이었던 아들이 체육 시간에 넘어져 한순간에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에서 투병하게 되었는데, 1년 후 하늘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저자는 위암 선고를 받는데, 1988년 4

월 6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하고 왔다. 위암이라고 한다. 성주를 떠나보낸 후, 난 이미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위암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니 말이다. 암 선고를 받고 나와,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응, 암이래.' 웃으며 말하는데 엄마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진찰실로 뛰어 들어가셨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승한 씨, 그리고 귀여운 딸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그곳, 더 좋은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저자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20대를 '사랑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아들을 잃은 30대를 '시련의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40대를 '안식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주는 남편과 딸의 배려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 3월 10일 일기 중 일부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지 6년이 되어 간다. 그 애가 떠난 후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인 신앙이 많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즈음 다시금 차곡차곡 신앙을 정리해 가고 있다. 첫째, 주님의 깊고, 넓고, 크신 뜻은 인간의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주님 앞에 내가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교만을 버리고 축복을 주신 자도 주님, 빼앗아 가실 권리가 있는 것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 타는



**믿을 수 있는 100% 대한민국 순수홍삼**  
**농협 홍삼 한삼인**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플러튼 한삼체인 입점기념으로**  
**6월 한달 동안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쿠켄 후라이팬

선물 받아보세요!



쿠켄 후라이팬 4종 세트(\$100 상당)



쿠켄 후라이팬 4종 세트(\$100 상당)

**1.홍삼농축액 100g 3병 세트를 \$270 ➤ \$200**

**2.홍삼 순액 80ml 두달분(60포)을 \$240**

LA 323-737-8888 / 3130 W.Olympic Blvd, Ste 120 Los Angeles, CA 90006(올림픽과 하바드)  
OC 213-453-6624 (플러튼 아리랑마켓)

www.korginseng.com  
email : kio6624@gmail.com

###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여섯번째 지팡이

■ 사도행전,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의 세워짐과 바울의 선교에 의한 교회의 확장

◎ 1장에서 12장,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2 제자(지파)를 새로 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온 세상을 향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1) 1:1-2:47,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그리고 교회의 시작, AD 32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뽀뽀이 흘려주고 복음의 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께서는 제자(사도)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과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실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

니다. 그리고 감람원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2) 3:1-5:42,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짐

(1) 3:1-4:31,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미문 앞의 앉은뱅이를 고치는 대표적 인 이적을 보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드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행 3:11-26).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남자만 무려 오천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잡혀감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2) 4:32-5:42, 신자들의 생활과 소유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눔(행 2:42-47, 참고)

초기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건들을 서로 나눠 쓰며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2:42), 능력의 공동체(2:43), 증인 공동체(2:47)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 불안한 요소들도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신앙이 그것입니다(5:1-16). 그리고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5:17-42)

3) 박해를 통한 팔레스틴 교회의 확장(6:1-12:25)

(1) 6:1-7:60, 튼튼해져 가는 교회와 유대인들의 박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로 성도간의 갈등이 생기자, 헬라파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심하게 되어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강건해집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스테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므로 각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 스테반을 공회에 세워 변론하게 하는데, 그 놀라운 변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므로 첫 순교자가 탄생합니다.

(2) 8:1-40, 팔레스틴 교회의 확장: 이 박해를 계기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팔레스틴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빌립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8:5).

(3) 9:1-31, 사울의 회심: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행 7:60

하)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4) 9:32-12:25,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역: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룬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서 중풍병으로 여덟 해 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고치고 음바에서 다비다(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여제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에 의하여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생겨나고, 박해를 피해 피진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설립하고 헬라인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바울 선교 여행의 중심지).

◎ 13장에서 28장, 세계로 전파되는 복음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되어진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에 의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따로 이방선교를 담당케 하십니다(13:2). 자연 발생적인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인 안디옥교회로부터 파송되어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따라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 13:4-21:17, 이방교회의 확장(바울의 선교여행)

(1) 13:1-52, 제 1차 전도여행 전반(AD 40년대 후반), 구브로와 지중해 연안

(2) 14:1-28, 제 1차 전도여행 후반(AD 49년 경), 내륙 지방, 남쪽 갈라디아지방

15:1-35, 예루살렘 공회

(3) 15:36-18:22, 제 2차 전도여행(AD 50-52년), 유럽 지방 선교(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4) 18:23-21:17, 제 3차 전도여행(AD 53년), 소 아시아 지역 선교(고린도전후서, 로마서)

2) 21:17-28:31, 로마 교회의 확장

(1) 21:18-26:32,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 당함. AD 58년

(2) 27:1-28:31, 로마에서의 복음의 전파(옥중서신)

글 =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이학진 장로

### 자살 생존자, 그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

“딸의 죽음이 나 때문인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설마 자살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찌다가... 다 내 잘못이에요.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그만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몇 개월 전 상담실에 찾아왔던 한 어머니의 절규 어린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딸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었고, 병원을 다니면 잠시 치료를 받았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견뎌보겠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딸은 세상을 등지고 어머니 곁을 스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결심도 했다고 합니다.

이다. 이 어머니에게 이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버렸고 깊은 우울증세까지 생겼습니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살 유가족' 혹은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적인 사별보다 몇 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의미에서 자살 생존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생존자, 그들은 진정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일까요? 자살을 택한 가족을 향한 원망보다 “왜 내가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과 자신 혹은 자살한 사람에 대한 분노로 고통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또 다른 자살충동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자살 유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편견과 낙인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더

편견과 비난이 심하고, 정죄받는 느낌 속에서 더욱 심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더 큰 희생자는 자살한 사람이 아닌 그의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안아볼 수 있다면, 작은 대답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이 찢어진 가슴이 조금이라도 매워질 텐데. 왜? 왜? 왜? 이런 일이... 엄마보다 훌쩍 커버린 너지만 내겐 늘 아가라. 아장아장 종종걸음으로 지금도 뛰어와 안긴다. 가슴에 통증이 서리서리 저며온다. 입을 악물어 울음소리마저 터지지 않는다. 가슴이 아파 숨조차 못을 지경이다. 내가 남기고 간 향수를 살짝 뿌려 본다. 너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오래 두어야 하기에 아끼면서... 너의 동생을 생각해 눈물을 닦고 표정을 감춘다. 너를 내 머릿속에서 멀리

하고 엄마 모습을 바꾸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너무나 미안하다. 죄책감에 가슴이 멍멍해진다. 아가야 미안하다. 네 곁에 있어주지도, 아픈 곳을 만져주지도, 그 무서운 것을 함께 해 주지도 못해 정말 미안하다. 너의 가슴과 마음은 얼마나 아팠나. 아빠도 조카 결혼식장에 다녀오더니 시멘트 바닥에 널부러져 앉아 너를 부르며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그칠 줄 모르고 하염없이 우시더구나. 엄마는 그 누구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딸아 보고 싶다. 미치도록... 그리고 미안하다.”

2009년 8월, 당시 27세로 자살한 딸을 가슴에 묻은 50대 엄마가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편낸 자살 유가족 수 기집에 남긴 글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슬픔이 느껴져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선부른 위로를 했다가는 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냥 곁에 머물러 함께 울어주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비난도 그치고 편견도 접어야 합니다. 자살 유가족은 극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좋게 우울증을 치료하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부여하는 일,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손상된 마음에서 생긴 우울증이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손을 잡아 주어 그 죽음으로부터 견제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자살한 이들의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대한민국 민족기업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올림픽+하바드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참여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 ‘가치관의 전쟁’ ‘전통결혼’ 최대 위기의 달, 금식기도합시다



새라 김 사모  
TVNEXT.org 공동대표

미국의 최상의 판결 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몇달간 2가지 케이스에 집중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가장 치열한 법정 소송에 놓여있는 2가지 법안 케이스들은 다름 아닌 현재의 미국의 헌법이며 남녀의 전통결혼만 인정하는 헌법인 DOMA(Defense of Marriage Act-전통결혼)와 캘리포니아의 PROP. 8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DOMA를 계속 헌법으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폐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2008년에 캘리포니아의 52.24%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하여 통과시킨 “전통결혼금지” 주정부 법안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듯 보이는 동성애자들과 자유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큰 목소리가 대법원 판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와 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 또한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인정할 경우 따라오는 부도덕한 수많은 결과들과 대가들을 예상할 수 있기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 -DOMA가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DOMA라는 연방정부 헌법이 무너지면,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혼이 무너지는 뿐만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성(gender)”에 연결되는 모든 성교육들의 비도덕성까지 법적으로 인

정하고 정당화되게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십대 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미소녀·소년 성폭행, 학교 총사건, 살인 등등의 범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어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혼돈과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몇 번 말씀드린 황당한 최근의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며 지금도 자유주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쏟아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신체적인 것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날 감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허락된다. 남자와 여자와 여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공장소 시설들이 남녀 구분없이 함께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된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은 4-5살의 유치원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혼란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질환의 급증과 사회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정체성으로 인한 혼돈으로 인해 결국은 어린이 우울증이 높아질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전통적 결혼정의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음세대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

### -DOMA 법안이 제정된 배경

1993년 하와이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제출하는 주(State)가 되면서, 그 당시 미국 정부와 대법원에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하와이의 동성애 결혼 지지 제출을 받은 미국 정부와 대법원은 결혼의 정의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으로 거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DOMA(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법안이었으며, 결혼에 대한 정의와 혜택이 이런 배경

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DOMA는 미국의 헌법으로 정식 제출되고, 특별히 DOMA 3조항에 의하여 결혼의 정의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을 인정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에 의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게 된다.

DOMA는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42대 67의 투표와 85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와 대법원에 의해 통과되고, 1996년 9월 2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처음 결혼제도를 헌법으로 정의한 역사적 사건이 생겨났다.

### -DOMA가 최악의 위험에 처하다!

오바마가 2011년 2월 23일에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Eric Holder)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포용할 수 없는 DOMA 헌법 3항은 헌법으로서의 해당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DOMA의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도덕적으로 더 큰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이 예상되는 RFMA(두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다.

2011년 오바마의 발표에 대해 2월 24일 워싱턴 신문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오바마)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헌(unconstitutional)”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2011년과 2012년에 “LGBT PRIDE MONTH(동성애를 응원·지지하는 달)”을 백악관에서 가짐으로써 자신이 동성애자들의 지지자임을 확인시켜 주고 결국 2012년 대통령 재취임 선거 때 이들로부터 지지를 크게 받았었다.

이처럼 전통결혼 법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공격이 계속 가해지면서, 2013년 3월 27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첫번째 구두변론(oral argument)

이 있었으며, 지난 5월 30일에 또 한 번 짧은 검토가 있었다.

그리고 6월 중 계속 논쟁을 통해 돌아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의 마지막 검토를 통해 DOMA와 캘리포니아의 PROP. 8이 헌법 그리고 주정부 법안으로 계속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앞으로 2주 후에 내려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 -긴급히 해야 할 크리스천들의 의무

기적을 위한 기도!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일(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막 9:29)  
연방대법원이 법적 결정을 6월 말에 내려주지 않고 기각시킨다면, 이 중요한 두 법안은 소법원에서 내린 “위헌”이라는 결과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법정의 논의 과정을 돌아볼 때, 대법원에서 DOMA와 PROP. 8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안전 자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만일 대법원에서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은 것처럼 이번 대법원에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결혼에 대한 창조자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며 가정의 파괴를 자초하는 일들이 된다.

▶단순한 기도가 아닌 금식을 동행한 기도로 주님께 기적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부터 6월 말까지 2주 동안 하루 한 끼 또는 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금식으로 기도하시되, 지금의 대법원에 있는 모든 판사들과 특별히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판사들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이 두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결혼은 상대가 누구든지 사랑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가정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며,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다음세대가 이어지고 인류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을 통해서만이 인류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며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조사 자료들이 또한 그 증거입니다. 건강한 결혼관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와 국가, 인류는 행복해집니다.

TVNEXT.ORG에 앞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전통결혼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세요.

### -DOMA와 PROP. 8을 위해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들(FRC, ACLJ, Liberty Council, TVC, CC 등)의 리더들과 보수파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피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오하이오 공화당의 하원의원인 존 보헤너(John Boehner) 같은 사람은 매우 강력히 자신의 전통결혼 지지를 발표할 뿐 아니라, 수억의 개인자금까지 사용하며 전통결혼을 지키고자 싸우기에, 수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통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업들: DOMA 헌법을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편지를 쓴 70 개의 Attorney Office 및 기업들입니다.(\*같은 회사지만 입장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

이 회사들은 전통결혼을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에 엄청난 후원금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사들의 매장에 가서 사용하는 돈들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 사회, 다음세대를 망하게 하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메모리얼 팍

아침 운동을 하다 문득 어느 공원 앞을 지나치며 보니 이른 아침임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골프를 즐기고 있다. 가만 보니 골프장 앞에 이름이 있는데 “xxx Memorial Golf Course”라는 이름이 있다. 모르긴 해도 누군가가 이 골프장을 애용하던 사람이 적잖은 기부를 해서 이 골프장을 짓지 않았나 싶다. 자신이 즐겼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골프를 치며 즐기기를 원하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보니 미국에는 메모리얼이란 이름이 붙은 기관들이 참 많다. 많은 병원 앞에 ‘메모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 고통 받는 다른 이들의 고

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보겠다는 유지가 담긴 병원들일 것이다. 그 외에도 메모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은 박물관, 학교, 심지어 공원에 가면 작은 벤치 하나를 세워놓고 그곳에 작은 글씨로 ‘In memory of 아무개’라는 글귀가 있다. 누군가가 이 공원을 즐기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휴식을 주겠다는 소원이 담겨있다. 아주 좋은 서양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대 크든 작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기념물들을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작고 귀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

런 메모리얼의 생각은 교회에도 많아서 많은 미국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이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기부하고 떠나는 예가 많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신앙적 전통이다 싶어서 나도 가끔 얘기를 하곤 하는데 한국 분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익숙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호응이 시원치 않고 때론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느 한 분이 그런 뜻이 있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쉽지 않기도 하다. 오래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자신이 돌아

가실 때 많진 않더라도 남은 모든 유산을 교회에 드리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오랜 후에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평소의 생각을 알고 있던 주위 가족들은 임종이 가까워오자 권사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가족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버렸다. 병석에 있던 권사님으로서 그런 가족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큰 재산이 있던 분이 아니셨지만 본인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꽤 아쉬웠다. 두고 보아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귀한 일이다. 믿

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쌓아 놓고 불태우고 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젊을 때 순교한 존 엘리엇의 말처럼 그것은 불들지 못할 것을 불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놓쳐서는 안될 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일 것인가?  
우리 모두가 사는 동안 누리며 나누며 살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아름다운 메모리얼들을 땅에 남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글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REVIEW



# 미처 몰랐던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 폴 워셔의 <복음>, 피트 윌슨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폴 워셔 목사



피트 윌슨 목사



복음

폴 워셔 | 조계광역 | 생명의말씀사 | 360쪽

‘급진적이고도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기독교출판 시장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도서들은 제목부터 ‘노골적’이다. 얼마 전 소개된 30대 듀오 매트 찬들러와 데이비드 플랫폼의 <완전한 복음(새물결플러스)>와 <팔로우 미(두란노)>에 이어, 폴 워셔의 <복음(생명의말씀사)>과 <하나님인가, 세상인가(아드폰테스)> 등이 연이어 발간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두란노)>가 4월에 발간됐음에도 2012년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집계 판매 1위 도서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제자훈련·사회복지·평신도 신학 등 ‘한국교회 위기론’에 제시된 갖가지 처방보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데 독자들이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도 독자들의 ‘니즈’에 맞춰 비슷한 내용의 도서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

몇 가지 신조로 복음 축소하고, 기도 한 번으로 구원을 끝내고...

**복음**  
폴 워셔 | 조계광역  
생명의말씀사 | 360쪽

원래 ‘The Gospel’s Power and Message’, 부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복음을 축소하고 소홀히 하면서 생겨난 폐해들을 찾아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철저한 타락, 속죄의 피, 참된 회심의 본질, 구원 확신의 성경적 근거 등이다. 그러나 강단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 설교자가 굉장히 많다. 교회는 복음을 몇 가지 신조로 축소하고, 회개를 인간의 결정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면, 곧바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한다.”

이런 식의 ‘복음 축소’는 일생에 단 한 번 전도집회에서 손을 들거나 기도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죄의 습관에 매여 속된 삶을 일삼는데도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전락시키며, 현대 문화에 복음을 적절하게 꿰어 맞추려다 이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마저 사그라 들었다는 것.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시각도 문제다. 복음은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이를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처럼 생각하고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복음은 평생, 아니 영원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다. 복음의 새로운 진리가 발견될 때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매료시켜 우리 생각을 다 빨아들이고, 우리의 지를 지배할 것이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 과정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설교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대담히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며,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고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호소해야 한다.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성경적인 복음 초청과 그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설교자는 말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매하게 만들어 무슨 뜻인지 분별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현명하면서도 위험한 일임을 구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직한 설교자이다.” 복음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옳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그 위험성을 이해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다.

저자인 폴 D. 워셔 목사는 남침례교 순회 설교자이면서 ‘HeartCry Missionary Society’ 대표를 맡고 있다.

2008년 애틀랜타 부흥집회에서 설교한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초장(Ten Indictments Against The Modern Church)’이 ‘21세기 최고의 설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찰스 스피켄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폴 워셔 목사는 올 8월 13-17일 한국에서 사경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말라”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피트 윌슨 | 이지혜역 | 아드폰테스 | 308쪽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피트 윌슨 | 이지혜역  
아드폰테스 | 308쪽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두란노)>의 저자이자 미국에서 주목받는 젊은 목회자인 크로스포인트교회 피트 윌슨 목사는 신작 <하나님인가, 세상인가(아드폰테스)>를 내놓았다. 부제는 ‘미처 몰랐던 내안의 우상 버리기(원제는 Empty Promises-헛된 약속)’.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워놓은 ‘우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Sejong Songbogam) -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Sejong Yorocheongbogam) -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Goryeo Balyeoseum) -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6월 26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562.900.2399**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 Life



기쁨의 가정

## 결혼의 기초

### 감정적인 끌림은 '잠시' ... 의지적인 결심이 더 중요해

결혼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쉽고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결혼 전, 아내와 사귀면서 아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너무도 쉽게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이라고 생각했고, 정답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엇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기초가 선택과 헌신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내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의 아내가 결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감정적인 끌림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강한 생리학적인 자극이 생깁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쁨과 함께, 식욕도 떨어지

고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신체적 징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의 확실한 징후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소위 콩깍지가 씌워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콩깍지가 씌워 있으면 상대가 과대평가되어 정말 멋진 사람, 나의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콩깍지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이 그려놓은 멋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콩깍지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콩깍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고 제정신이 들면, 너무도 많은 부부들이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며 이혼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을 안고 돈과 시간을 들이며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내가 그 때 미쳤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선택했을까?", "내가 너무 잘못 보았어...

내 눈이 멀었지..."

현대 생리심리학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는 화학 물질이 넘치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부신수질호르몬), 도파민 특별히 페닐레틸라민(PEA /Phenylethylamin)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모두 암페타민(amphetamine/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계통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 때 마치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붉어지고, 손바닥엔 땀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진짜 도취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커플들 중에 많은 경우, 설레는 느낌이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필연적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연적인 '암페타민'이 끊임없이 흐르면 신체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무한정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사라져야 하는데, 바로 신체에 휴



식을 주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화학 작용이 감소하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화학 작용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화학 작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로운 큰 축복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그 위험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감정'보다,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느낌보다는 선택이며, 헌신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선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감정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행복' 화학물질이 안전하고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강력한 느낌이 없다고 사랑이 없어졌다고 여기며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연인 때보다 더 깊고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 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약력>  
-호주가정상담대학 한국어 통신과정 디렉터  
-호주가정사역센터 대표  
-전 캔버라 열방대학 성경연구학교장  
-기독교 상담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제경영 석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상'에게서 찾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이상을 숭배할수록 우리 영혼은 고갈되고, 그렇게 돈과 시간과 힘과 마음과 열정을 퍼주면 퍼줄수록 지치고 공허해진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가는 대신 내면의 질문들,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

책의 2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성취 이상', 사랑과 용납을 관계에서 찾는 '인정 이상', 통제의 환상에 사로잡히는 '권력 이상', 돈으로 못 사는 게 없다고 믿어 버리는 '돈 이상',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려 하는 '종교 이상', 미모를 최

고의 무기로 여기는 '외모 이상',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혼동하는 '꿈 이상' 등이다.

저자 자신의 직접 경험과 목회자로서 상담 가운데 듣게 된 간접 경험들은 이러한 이상의 실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저자는 '잘 나가는 목회자'로서 맞이하게 된 수많은 일들-설교 준비, 블로그 글쓰기, 책 집필, 여행, 행정 업무, 목회 상담 등-로 탈진에 공황 상태가 왔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이 이상이 되어버린 것.

"여러 면에서 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쓰고 건강을 돌보는 일보다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선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이메일 답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보다 강력한 설교를 더 중요시했다. 이유가 뭘까? 다른 중독처럼, 나는 이 중독성 있는 행위에서 흥분을 느낀다. 공격 생산성에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면이 있다. 공격 생산성은 인정과 칭찬을 가져다 주고, 아드레날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성취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그 일에 정체성의 뿌리를 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렇게 우리는 헛된 약속과 내 안의 각종 이상들에서 돌이켜야 한다. 쫓기는 삶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공핍한 삶에서 보장된 삶으로, 통제하는 삶에서 굴복하는 삶으로, 탐욕스런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종교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외모에 집착하는 삶에서 진정 아름다운 삶으로, 과거 때문에 좌절하는 삶에서 미래를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이 책은 우리가 내면의 깊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

낸 이상들을 밝히 드러내는데, 이러한 쾌락과 명예, 열정과 지위, 인기와 성취, 재물 같은 이상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며 "내 친구 피트 윌슨은 만족과 의미를 찾는 당신의 진짜 갈망과 그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평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감림 수양관 여름수련회 접수

새로운 지도자가 2세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감림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접수중

- 30-200명 수용가능9개성전(학생, 전교인, 프레스 디아스)
- \* 한, 중, 일, 양식제공 (별도 대형 2개 주방시설 완비)
- \* 동시에 3 그룹 300명 수용 (침실, 샤워, 냉 온방 시설)
- \* 300대 주차장,(축구, 족구, 배구, 농구 운동장)
- \* 어린이 역사, 자연학습장(동 식물농장, 풀장시설)

**치유 사역**: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세계적으로 능력있는 강사 30명 초청)
- JS Healing Ministry: President Moses S. Kim Pastor (213)216-3700

**중·고교 학생들**의 금식기도 팀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다민족 2세들을 하나가 되게하는 비전 실천; 기초과학 부분인 수학을 지역사회에 10개 지부에서 7년간 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부설립을 지원합니다. www.glimathclub.com

**노후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보내며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각종 **건물관리**에 **은사를**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24101 Christs Tree Ln, Perris, CA 92570

감림 수양관 연락처 (951) 943-4207, (909)-993-3939, (323) 868-9191, (213) 216-3700  
www.gamrimsan.com / www.kamlimretreat.com / www.retreatkamlim.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완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KTXPRESS**

말도 안 되는 가격 \$6.99에 초고속 LTE급 픽업 & 배송 !!

불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만하면 당일 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및 충격흡수제 무료제공

최저가격!! 구매대행, 배송대행, 무역대행 전문업체

KT 스페셜 프로모션 소량화물 3+1(4개중 1개 공짜!)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 유학생 귀국이사 / 자영업자 운송전문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T:213-365-8588/9 F:213-365-8586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완전 인가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젊은 샐리온! 자동차 핸들 커버 \$30 강력한 흡입은 • 원적외선 방출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기력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데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월 스페셜!

좋은 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82**  
+TAX



2013 ACCENT GLS (STK #398513)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16,890

PH HYUNDAI D/C	\$1,373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STK #713499)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22,375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3**  
+TAX

2013 EQUUS SIGNATURE

24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10,5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369**  
+TAX (STK #065945) Demo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